

#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

## 本紙 최호열 발행인, 불우이웃돕기 誠金 전달

상시 운영중인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는 항상 긴장되면서도 넉넉한 자리가 되고 있다.

10월26일 오후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주부명예기자단 권귀자 이사, 김미경 부단장, 조경자 명예기자는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정성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은 포천시 화현면 화현5리 김옥근 할머니와 일동면

유동1리 박정재 할머니에게 각각 2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또 일동초등학교 유가영, 차주웅 어린이에게도 각각 2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유필규 할머니와 김상태씨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이동초등학교 2학년 김예령, 정소영 어린이에게도 각각 2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이동면 장암리 김영분 할머니와 이동면 도평4리 박귀례 할머니에게도 각각 20만

원씩을 전달했다.

아울러 영북중학교 1학년 김만섭, 2학년 고영빈, 3학년 최은경 학생에게도 각 20만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포천시 신북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해뜨는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 기저귀를 구입하는데 보태라고 2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성금전달식에서 최호열 본지 발행인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희망과 꿈을 갖고 꾸준히



영북중학교 학생 3명에게 각 2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하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기원했다.(사진은 왼쪽부터 김중후 영북중학교 교사, 심흥신 교장, 최호열 발행인, 장기문 교장, 권귀자 이사, 조경자 주부명예기자, 김미경 부단장)

노력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돕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독거노인들에게는 "건강을 잘

챙기고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이라며 위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포천시 일동면 유동2리에 혼자 살고 있는 박정재 할머니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에 살고있는 독거노인 김옥근 할머니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사진은 좌로부터 주부명예기자단 권귀자 이사, 최호열 발행인, 김옥근 할머니, 주사리교회 이순철 목사)



일동초등학교 유가영, 차주웅 어린이에게 각각 성금 20만원씩을 전달했다.(사진은 좌로부터 본지 최호열 발행인, 권귀자 부단장, 김병준 일동초등학교 교장)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포천시 이동면 연곡4리에 장애인 아들과 함께 힘들게 살고 있는 유필규 할머니와 장애를 안고 힘들게 살고 있는 김상태씨에게 각각 성금 20만원씩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동초등학교 김예령 어린이 할머니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예령을 위해 새 달라고 당부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쓰러져 치료중에 있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 정소영 이동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혼자 살고 계신 김영분 할머니께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포천시 이동면 도평4리 가리신 집에서 홀로 살고 계신 92세 박귀례 할머니께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사진은 좌로부터 조경자 주부명예기자, 박귀례 할머니, 권귀자 이사, 최호열 발행인)



사회복지시설 해뜨는 집을 방문해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사진은 좌로부터 최호열 발행인, 권귀자 이사, 정미숙 시모, 박진수 원장, 조경자 주부명예기자)

### 추천! 한마당 이야기

#### 생명을 구한 미소

**이문용**  
본지지문위원

‘어린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가 전투 중에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감옥에서는 금방이라도 처형할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그는 두려움과 공포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을 덜어내기 위해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성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살 너머 간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 주시겠소?” 간수는 슬쩍 쳐다보더니, 그의 감방 앞으로 다가왔고 담배에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간수와 눈이 마주친 그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화답하듯이 간수는 불을 붙여 주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생텍쥐페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는 지갑에서 가족사진을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지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방 문을 열어 주었고, 감방 뒷문을 지나 마을 입구까지 안내해 주고 되돌아갔습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문의 011-342-5834)

### 시인의窓

#### 안개 속에서

조미경(포천문인협회 회원)

앞도 없고 옆도 없는  
팔 뻗어 잡아도 만져지지 않는  
안개

발 내딛는 대로 생기는 길  
뒤돌아보면 지나온 곳은  
다시 안개  
그것은 미로

과속하지도 못하고  
나태하지도 못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곳  
발가락만 아프게 자라는데  
누구도 열어 주지 않는 길

안개 속에 갇혀  
수저가 다 닳도록  
혼자서 간다

〈감상노트〉

사람은 늘 혼돈 속에서 자신에게 물으며, 길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종종 찾게 마련이다. 밖으로 난 길보다는 내면의 길에서 방향과 망설임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다. 앞이 막막할 때 내면의 길에서 서둘러 탈출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길이 보일 것이다. 좋은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탄탄한 길로 삶을 떠나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안 익 수(시인)

## 농업기술센터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

###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농기계 순회 수리와 병행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각종 농기계수리를 직접해주고 있으며 현장이용기술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이 간단한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며, 특히 사고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하여 특별 안전작업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센터에서는 1층 1부서 자매결연부락(신북면 계류2리, 이장 양희중)에 고가인 농기계 구입이 어렵고,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영농규모가 적은 영세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팀이 직접 현지에 나가 콤팩트 수확 등 벼베기 일손돕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벼베기 일손돕기를 신청한 농가는 모두가 바쁜 철에 농기계를 대여하기가 어려워 고민하던 중 내일처럼 도와준 농업기술센터에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노인복지센터 노인잔치한마당 열어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10월23일 포천시에서 열렸다. 포천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고 (사)더불어사는사회가 주최한 경로잔치가 관내 노인 약 300여명을 모시고 포천 용정웨딩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경로잔치는 환영철 포천시 부시장,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이금중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모두가 하나 되어 외롭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과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소고춤, 경기소리보존회, 스포츠댄스 등의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환영철 포천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시는 많은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오늘날만큼은 주위의 모든 사랑을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당부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중증 장애인과 함께 에버랜드 나들이

#### 포천시 보건소 장애인과 함께 세상 밖으로 행사

눈높이 장애인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포천시보건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23일 '장애인과 함께 세상 밖으로' 행사를 벌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1-2급 중증장애인 및 가족 53명, 포천의용소방대원 10여명과 포천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했다.

이번에 나들이한 곳은 용인시에 소재한 에버랜드였는데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수고로 싸파리월드와 퍼레이드, 포시즌가든을 관람하는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뇌병변 장애 1급 박모씨(56세)는 살아생전 한번도 와 보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와서 너무 기쁘다며 즐거운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황모씨(39세)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자원봉사의 기쁜 맛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행사로 장애인들과 함께 강화도로 나들이를 하였는데 장애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사/건/사/고

#### 가구전시장 화재발생 9천만원 피해

지난 10월 28일 오후9시32분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19-4번지 소재 가구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3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소흘읍 가구거리의 가구전시장인 우드피아, 리바트, 레이더 가구 등 부동산 3개동 약1000㎡가 소실 및 동산 장롱, 소파 등 소방서 추산 9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28일 22시 16분경 관인면 사정리의 주택에서도 비슷한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 부동산, 동산 등 약 1천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진압 도중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난 10월 28일 오후9시02분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19-4번지 소재 가구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3시간만에 진화됐다.